

수입차 업계, 연말 ‘신차 레이스’ 친환경·경제성 다 갖추고 출격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연말 ‘친환경·경제성’을 갖춘 모델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계 친환경차 바람에 맞춰 국내 시장도 전동화 모델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토요타와 BMW, 아우디 등은 연비 효율성이 뛰어난 신형 모델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토요타는 이날 글로벌 베스트셀러 세단인 캠리의 신형 모델을 국내 출시했다. 이달 1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한 캠리는 9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26일 현재 사전계약 500여대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캠리는 TNGA-K 플랫폼을 바탕으로 토요타 최신 디자인 방향성을 반영해 하이브리드 모델로만 출시된다. 파워트레인도 토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5세대 THS를 탑재, 기존 모델보다 엔진과 모터 출력을 개선했다.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 기모터를 조합한 9세대 캠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총 227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17.1km/L(복합연비)의 연비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모델 대비 가속 성능이 향상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토요타는 캠리 가격을 4800만~5360만원으로 책정했다.

BMW는 28일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 X3를 국내 선보인다. 뉴 X3는 기존 세대보다 커진 차체와 강렬한 내외관 디자인을 기반으로 최신 운영 체제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OS) 9를 탑재해 진보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모든 모델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강화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는 전동화 모델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G바겐이라 불



토요타 2025년형 캠리.



아우디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토요타 하이브리드 신형차 ‘캠리’
BMW 4세대 완전변경 모델 ‘뉴 X3’
벤츠 한정판 ‘에디션 원’ 내년 출시
아우디 더 뉴 Q6 e-트론 사전 계약

리는 오프로더의 아이콘 G클래스의 첫 순수전기차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를 최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벤츠코리아는 한정판 모델인 ‘에디션 원’을 올해 선보이고 일반 모델은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국내 70대 한정 판매되는 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에디션 원 모델의 가격은 2억3900만원이다.

아우디는 중형 전기 SUV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을 최근 한국 시장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했다.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은 아우디가 포르쉐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PPE)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양산 모델이다. 효율성과 주행 역학, 디자인 등에서 새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인 유로 NCAP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은 전장 4771mm, 전폭 1939mm, 전고 1648mm의 넉넉한 차체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100kWh(킬로와트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641km(유럽연합 기준)에 달한다.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의 국내 판매 가격은 8000만원 초반에서 1억원 초반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권 점포 축소… 접근권 보장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5년간 국내점포 1000개 폐쇄
이동점포 활성화 등 개선방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점포가 1000여개 폐쇄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줄어드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권리 보장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場)’ 간담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인 가운데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점포 등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 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행사에는 6개 금융협회장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소비자단체, 장애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접근성 관련 주요 이슈로 ▲은행 점포폐쇄 추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장애인의 금융거래 애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는 경영효율화에



다른 점포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12.7개로 OECD 국가 평균 15.5개보다 적다. 지난 2021년 말 6121개에 달했던 은행 점포는 지난 달 기준 5690개로, ATM은 3만1789개에서 2만 7157개로 감소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708개, 비수도권 481개 등 총 1189개의 은행 점포가 폐쇄됐다.

이에 비도심 거주자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도 ‘금융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장애인의 금융거래 지원 제도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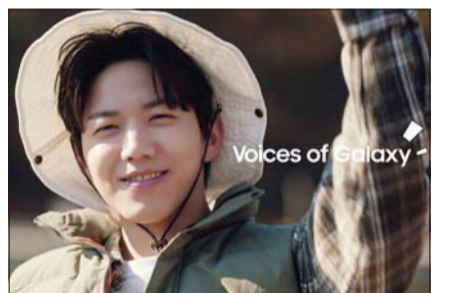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공동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점포·ATM 대체 수단 마련 ▲이동점포 활성화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 절차와 비용 부담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강화, AI 금융상담 불편 해소, 장애인 응대매뉴얼 정비 및 장애인용 인프라 확충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Voices of Galaxy’ 영상에 출연한 배우 고민시(왼쪽)와 데이식스 드러머 도운.



/삼성전자

삼성 “인생 답, 하나가 아냐” 수험생 응원



‘Voices of Galaxy’ 조회수 1800만회
배우 공효진·고민시 등 영상에 출연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삼성전자의 ‘Voices of Galaxy’ 영상이 화제다.

삼성전자는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Voices of Galaxy’ 영상의 조회수가 1800만회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14일부터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갤럭시가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한 ‘Voices of Galaxy’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배우 공효진, 고민시, 박보영, 여행 인플루언서 빠니보틀,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 밴드 ‘데이식스’의 드러머 도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룬 셀럽이 출연해 수험생을 응원한다.

총 6편으로 제작된 영상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시청자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며 2주 만에 조회수 1800만 회를 돌파했다. 또 업로드된 지 5일

만에 총 조회수 86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은 갤럭시 스마트폰 유저인 셀럽들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스무 살의 탐험을 갤럭시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된다.

배우 공효진은 “시험에 답은 하나지만 인생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며 뒤편 도전해볼 기회를 제안하고, 빠니보틀은 “시험이 끝난 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막 공항에 도착한 상태와 같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자신이 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드러머 도운은 “점점 재밌어지는 게 인생”이라며 “시험은 끝났지만 인생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가자”며 힘찬 격려를 보냈다.

한편, 삼성전자는 수험생을 위한 든든한 혜택으로 가득한 ‘갤럭시가 응원합니다! 수능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정 생년월일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인 고객이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하고 개봉하면 갤럭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버즈3’를 증정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온라인 호조…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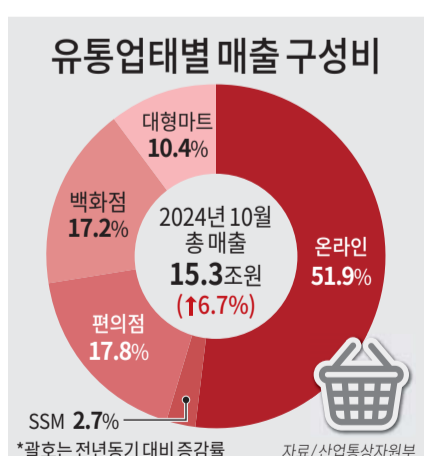
산업부, 10월 유통업체 매출 15.3조
대형마트·백화점 등 매출은 ‘부진’

올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수준에 머문 반면, 온라인 구매 확대로 온라인 매출 확대가 전체 매출 증가를 끌어올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3000억원 대비 6.7% 늘었다.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희비는 엇갈렸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온, 휴일 수 1일 감소 등으로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생필품 소량구매가 가능한 편의점(3.7% ↑)·준대규모점포(7.1% ↑) 매출은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3.4% ↓)·백화점(2.6% ↓) 매출은 부진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집밥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 분야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전/문화 등이 크게 감소했고, 백화점은 식품, 해외유명브랜드는 상승했지만, 가을 옷 구매 감소 등으로 대부분 부진했다.

온라인의 경우 서비스(66.5% ↑), 식

품(24.8% ↑), 생활/가정(11.3% ↑) 등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해외직구 영향 등으로 패션/의류(9.8% ↓), 가전/전자(12.7% ↓) 부문은 감소, 전체 매출은 13.9% 증가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가전/문화(11.6% ↓), 패션/잡화(6.0% ↓), 아동/스포츠(4.7% ↓)는 감소, 서비스/기타(31.7% ↑), 식품(11.8% ↑) 등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51.9%)이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한편,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은 소비동향과 악을 목적으로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편의점3사, SSM 4사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사 10개사의 월간 매출액 또는 거래액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